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4.1.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쏘나타·K5 살 때 탄소세 안낸다’ 관련 보도에
대한 입장 (‘14.1.20(월), 머니투데이 종합 4면)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조금-부담금 기준이 되는 중립 구간의 CO₂ 배출량을 131~150g/km으로 설정기로 잠정합의
 - 보조금 규모는 최대 300만원(전기차는 별도), 부담금 규모는 700만원이며 정기적으로 재설계할 방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“확정시기, 보조금-부담금 구간 및 금액 등”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며, 관계부처 및 업계, 소비자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갈 예정
 - 산업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할 것임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배준형서기관(044-203-4321)